

순천시, 문화산업도시 견인할 '3대 특구' 완성

애니메이션·글로벌대학 30 연계 지방소멸 대응할 중소도시 모델 "순천의 새로운 가능성 선보일 것"

순천시가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했다. 'K-디즈니 순천'을 비전으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국립순천대학교 글로벌대학 30 선정으로 정부 지원에 뭉칠 수 있다. 시는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도시 전체를 문화콘텐츠로 옷 입히고 순천이 꿈꾸

는 문화산업 메카의 청사진을 보여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전 선포의 장이자 산업·애니 콘텐츠 축제가 될 '글로벌 가든 콘 페스타'를 가을 중 개최하고 지역 자원과 역사를 활용한 우리동네 캐릭터 시범사업, 찾아가는 정음음악회 등 연관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산업 메카의 청사진을 보여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전 선포의 장이자 산업·애니 콘텐츠 축제가 될 '글로벌 가든 콘 페스타'를 가을 중 개최하고 지역 자원과 역사를 활용한 우리동네 캐릭터 시범사업, 찾아가는 정음음악회 등 연관 사업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광양·여수와 협력하는 이차전지 분야, 순천시 단독으로는 'K-디즈니 순천'을 비전으로 하는 문화콘텐츠 분야를 각각 신청해 선정됐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존의 하향식, 규제완화 수준의 특구가 아닌 지방 중심의 상향식 계획 수립,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하고 있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수해야 할 특구로 꼽힌다.

선정된 특구 중 전통적인 제조업·중화

학공업 등이 아닌 문화산업을 택한 것은 전국에서 순천이 유일하다. 시는 이미 관련 앵커기업 3개사와 국가정원 권역에 기업 이전을 추진하는 MOU를 체결했으며, 원도심권에는 향후 5년 간 관련 기업 30여 개사의 입주 유도를 4052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고 1154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지방시대 양대특구를 이루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공교육 강화와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방정부와 교육청·대학·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 고유의 교육모델을 수립하는 체제다. 순천시가 교육청과 협의해 제안·선정된 교육발전특구 모델에는 'K-디즈니 순천' 비전과 공교육 연계, 문화콘텐츠 산업 인재 양성 등이 포함되어 기회발전특구에 전문 인력 풀(POOL)을 공급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에서 꿈을 키운 순천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지역의 앵커기업에서 먹이를 찾고, 다시 문화도시 형성에 기여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 순천이 3대 특구를 유지한 목적이다.

3대 특구에 앞서 순천시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순천대학교 글로벌대학 30 등 정부 역점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두 사업은 3대 특구와 함께 순천이 쏠아 올린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 발사체에 추진체를 달아 줄 전망이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로 확보한 390억 원은 기회발전특구로 투입되어 콘텐츠 기업 이주 정착을 촉진하고, 창작기지와 제작기지를 이원화해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지산학이 협력해 기업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대학 30 사업은 순천에 문

화콘텐츠 캠퍼스를 두고 웹툰·애니메이션 아카데미 운영, 산학공동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면서 교육발전·기회발전특구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전망이다.

노관규 시장은 각 정부부처로부터 쏟아지는 재원들이 흩어지지 않고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갖추고, 시 전역을 문화산업 기지화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노관규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이들은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동지가 없어 어디에도 자리 잡지 못하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 있다"면서 "정원과 박람회로 구축한 기동 안에 문화산업으로 촘촘한 속살을 채워, 먹이와 동지가 모두 있는 새로운 중소도시 모델을 순천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sjbae@jnilbo.com

풍덕동, 폭염 사각지대 해소 여름나기 물품 지원

순천시 풍덕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향은)는 관내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풍덕동 COOL! 여름나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홀몸노인, 고독사 고위험 1인 가구, 만성질환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가구별 전수조사를 통해 선정된 50여 가구에 대해 벽걸이 에어컨, 선풍기, 여름용 침구, 복달임 건강음식(삼계탕) 등을 전달하며, 동시에 안부를 살피는 모니터

링도 함께 진행한다.

폭염 취약 분야에 종사하는 노인일자리, 시장 주변 노점상 및 야외 근로자들에게는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3대 수칙(물, 그늘, 휴식)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지원은 풍덕동마중물보장협의체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그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두 기관의 협업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향동 복지기동대 회원들이 지난 6일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했다. 순천시 제공

향동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독거 어르신 가정 청소 봉사

순천시 향동 복지기동대는 지난 6일 치매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독거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와 방역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평소 이웃에 관심을 가진 주민의 신고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어르신은 외부와의 교류 없이 집에만 지내면서 각종 음식물 및 생활 쓰레기로 인해 악취가 진동하는 상황이었다. 복지기동대의 도움으로 깨끗한 주거환경이 조성됐다.

어르신은 경증 치매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치료를 거부하여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복지기동대의 지원을 통해 타지에 있는 가족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해 치매검사 및 병원입원까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박상호 복지기동대장은 "폭염 속에서도 악취와 쓰레기로 덮인 현장을 대원들과 정성껏 청소하고 나니 큰 보람을 느꼈다"

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언제든지 출동하겠다"고 말했다.

향동 담당자는 "도움이 필요한 분은 언제든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기동대의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소규모 집수리, 청소,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걷고 싶은 도시 순천을 걷다

SNS 해시태그 이벤트

61·62코스 걷고 SNS에 인증

순천시는 코리아둘레길 남파랑길 순천 구간을 걷고 인증하는 '남파랑길 SNS 해시태그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두루누리 앱을 통해 남파랑길 순천 구간(61·62코스)을 따라 걸으며 사진을 찍은 후 개인 SNS에 필수 해시태그를 넣어서 게시물을 올리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구글폼(<https://forms.gle/RVugDVwv9f7KKRfk>)을 통해 SNS 인증 게시물을 첨부하면 된다.

이벤트 기간은 이번 달부터 오는 11월까지이며, 매일 30일 참여자 20명을 추첨을 통해 선정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코리아둘레길 남파랑길 순천 구간은 61·62코스로 해남이 명소인 와온 해변, 세계연안습지인 순천만습지, 일출이 아름다운 별량화포 등 순천의 독보적인 해양경관, 갯벌, 갈대밭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남파랑길 61~62코스
#코리아둘레길
#순천여행
#순천만습지

목욕탕 수질 검사 등 휴가철 위생 점검 실시

순천시는 휴가철을 맞이하여 관광객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목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일까지 관내 목욕탕 42개소에 대하여 원수와 욕조수 수질검사 및 영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목욕장업자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원수와 욕조에 대한 수질검사를 포함한다.

검사 항목으로는 원수의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총대

장균군 등 5개 항목과 욕조수의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3개 항목이 포함된다.

1개반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영업주 또는 책임자 입회하에 원수·욕조수를 채수하여 순천대학교 친환경농업센터에 수질검사를 의뢰한다. 또한, 욕실의 청결상태, 발한실의 안전관리,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순천=배서준 기자

AI 안부 케어콜, 왕조1동 간경화 응급환자 생명 구해

순천시 왕조1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미란)는 지난 2일 순천 AI 안부 케어콜(이하 순천 케어콜)사업을 활용한 담당자의 발빠른 대처를 통해 간경화를 앓고 있는 복지대상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7일 밝혔다.

'순천 케어콜'은 대화형 AI가 주 1회 일상적 대화를 통해 유선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고독사 예방 사업이다. AI는 대상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복지 담당자에게 이상 징후 등을 분석한 통화 결과를 전송한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 담당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순천시는 독거노인, 1인 거주 중·장년 등 300명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왕조1동에서는 25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조례동에 거주하고 있는 윤모 씨는 지난 1일 '순천 케어콜' 미연결 대상자로 통보됐다. 다음날 2일 윤모 씨의 핸드폰이 꺼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복지팀 담당자는 즉시 윤모 씨의 가정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위액을 토한 채 기력을 잃고 누워있는 윤모 씨를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

다. 현재 대상자는 치료를 받으며 회복중이다.

왕조1동 복지팀은 그동안 윤모 씨 가구에 폭염 대비를 위해 선풍기 및 현관 방충망을 지원했다. 또한 '왕조1동 복지기동대'를 파견하여 청소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매주 목요일 '항기술술 반찬 배달' 사업을 통해 대상 가구의 안부를 살피고 있었다.

왕조1동 관계자는 "이번 왕조1동 응급환자 발견에 순천 케어콜이 큰 역할을 했다"며 "복지 담당자들이 매년 가정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만큼, 앞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더욱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